

광주시 10년 독심 '우리밀 육성' 결실

광산구 한국우리밀농협, 농식품부 우수국산밀 생산단지 최우수상 조례 제정 소비·교육컨설팅 등 각종 지원사업...생산량 전국 3위

도시권임에도 '우리밀 살리기'에 집중해온 광주시가 10년 넘는 독심 지원으로 '우리밀 육성 메카'로 거듭나고 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에 있는 한국우리밀농협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aT가 주관한 '2022년 우수 국산밀 생산단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개 시도 22개 생산단지 중 지자체 자체 평가와 전문가 서면·현장평가를 거

쳐 최종 9개소를 2022년 우수국산밀 생산단지로 선정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한국우리밀농협'은 농식품부장관상과 상금 300만원, 2023년 농식품부 교육컨설팅지원사업 인센티브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광주시는 2009년 8월 '광주시 우리밀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10년 넘게 우리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15억원을 투입해 우리밀 건조·저장시설 지원(10억원), 생산비 지원(2억

원), 경영체육성(시설·장비) 지원(1억원), 소비촉진·현장체험 지원(1억원), 교육컨설팅 지원(1억원) 사업 등을 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광주시의 국산밀 생산량은 도시권 자치단체임에도 전남도, 전북도에 이어 전국 3위에 이름을 올렸다. 남태승 광주시 생명농업과장은 "10여 년 간 국산밀 건조저장시설·생산비·소비 촉진,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해온 결과 광역시 최초 국산밀 생산량 전국 3위와 농림축산식품부 우수 국산밀 생산단지 최우수상 수상 등의 성과로 이어졌다"며 "2023년에는 수매용 톨백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국산밀 생산,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시 농기센터 농업기계 교육훈련 우수기관

농촌진흥청 종합평가회 선정

광주시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2022년 교육훈련사업 종합평가회에서 '농업기계 교육훈련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전국 156개 농촌진흥기관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교육 성과, 자료 발간, 언론 홍보, 지자체 노력도 등을 심사 평가해 매년 '농업기계 교육훈련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시 농기센터는 농기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10과정 26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

했으며 언론 보도,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블로그 등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해 교육과 안전 홍보 등 농기계 사고 예방에 기여한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시라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수상은 농업인과 시민이 농기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 교육 성과를 확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홍보하는데 주력한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농업현장 맞춤형 농기계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립도서관 초등학생 겨울방학 독서교실

다양한 주제 독서·토론·체험 활동

광주시립도서관(무등·사직·산수)은 "겨울방학을 맞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의 '겨울독서교실'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무등도서관은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초등학교 3~5학년 20명을 대상으로 '세계사-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인류 역사상 벌어졌던 전쟁의 참혹한 모습을 확인하고, 슈링클스 만들기, 반전운동에 대한 구호 및 포스터 제작 등을 통해 전쟁과 평화의 의미와 가치 등을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사직도서관도 같은 기간 초등학교 1~3학년 20명과 함께 '신나는 겨울방학- 도서관에서 여행가자'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각 지역의 지리와 특성을 사투리의 재미, 문화재의 멋, 특산물의 맛 등 3

개 테마로 나눠 알아본다. 산수도서관은 17일부터 19일까지 초등학교 4~6학년 15명을 대상으로 '산수(山水) 환경학교'이라는 주제로 독서와 토론을 진행하고, 산수공원에서 플로깅(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하며 환경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겨울독서교실 참여는 시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무등(613-7747), 사직(613-7772), 산수(613-7814) 도서관 어린이실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된다. 진재호 시립도서관장은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아날로그 독서를 접할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며 "책을 매개로 한 다양한 주제의 독서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이 독서에 대한 흥미를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CCTV 확충 사회안전망 더 촘촘해진다

5개 자치구·LH 등 483대 이관

광주지역 범죄예방용 폐쇄회로(CC)TV가 확충돼 사회안전망이 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2년 5개 자치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방범용 CCTV 총 483대를 이관받아 범죄예방용 CCTV로 통합 관제하고 있다. 이관 받은 CCTV는 자치구가 범죄취약구역 등에 설치한 403대(서구 65대, 남구 177대, 북구 72

대, 광산구 89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22대(빛그린국가산업단지), 중흥3구역 주택재개발조합 15대 등이다. 광주시는 현장조사 등 CCTV 설치 단계부터 자치구와 사전협의를 하고, 시설물 관리 전환을 위해 카메라, 비상벨 작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이관 절차를 마무리했다. 올해에는 자치구의 CCTV 이관 계획에 따라 올해보다 144대 더 늘어난 627대가 이관될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연말연시 공직자 공직기강 특별감찰

광주시는 "연말연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오는 18일까지 특별감찰 활동을 한다"고 1일 밝혔다. 중점 감찰 사항은 ▲공가·병가 허위사용, 근무지 무단이탈 등 복무위반 행위 ▲음주운전, 갑질, 성희롱 등 품위 손상 행위 ▲민원처리 지연 등 소극행정 행위 등이다. 또 금품·향응수수, 부정 청탁

등 공무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감찰한다. 이갑재 광주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특별감찰을 통해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청렴하고 부패 없는 광주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현장노동자와 따뜻함 나뉘요"...광주도시공사 찾아가는 커피트럭

에너지밸리 등 건설현장 응원

광주도시공사는 "최근 연말연시를 맞아 건설현장 노동자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찾아가는 커피트럭' 이벤트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 공사는 주요 건설사업 현장인 남구에너지밸리 산업단지와 첨단3지구 AI 집적단지 현장을 방문해 노동자들에게 커피와 간식을 전달하고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이날 커피를 전달받은 한 노동자는 "추운 날씨에 따뜻한 커피와 간식을 받아 몸과 마음이 따뜻해졌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정민근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공사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건설현장 노동자들에게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담아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노동자들과 상생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전국 대표 가족친화도시 자리 잡았다

51개 기업·기관 가족친화 인증

광주시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정책 등을 기반으로 전국을 대표하는 '가족친화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주시는 "2022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에서 신규인증 21개, 유효기간 연장 13개, 재인증 17개 등 총 51개 기업·기관이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인증심사에선 21곳이 가족친화인증을 새롭게 획득했으며, 지역 내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도 총 121곳으로 늘었다. 여성가족부(한국경영인증원)는 2008년부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을 심사해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있

다. 심사는 최고경영층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을 종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기업·기관에는 이미지 개선, 이직률 감소, 근로자 직무몰입 증가 등의 효과를, 근로자에게는 삶의 질 향상, 직무만족도 증가, 직원 간 관계증진 등 긍정적 효과를 제공한다는 게 여성가족부의 설명이다. 광주지역은 인증 초창기만 해도 대부분 공공기관 중심으로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했으며, 현재는 다수 중소기업이 모·부성 권리보장 제도를 준수하고 가족친화경영을 새로운 경영전략으로 실천하는 등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에 기여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기업·기관은 중앙정부, 각 지자체, 금융기관이 부여하는 239개의 인센티

브를 활용할 수 있으며, 광주시도 용역 가점,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무료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시는 또 전국 최초로 가족친화경영지원금을 추진해 가족친화의 날 정착과 가족휴가 지원 등 중소기업에 새로운 가족친화 문화정착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 이명순 광주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지역 기업·기관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신규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은 (사)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재단법인 광주광역시사회복지서비스원, 재단법인 광주복지연구원, (주)광주신세계, (주)대웅에스엔티, (주)에이비추얼, (주)현대하이텍 등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광역시 의사회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광주광역시의사회는 145만 광주시민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의사회장 박유환

대표전화. 062_529_2101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18번길 25(신안동)



광주유일 보건복지부 지정 관절전문병원

동이병원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38
☎ 062.650.2500